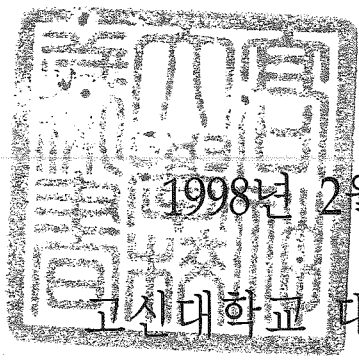


K9 CT
230.42
K9680

신학석사 (Th. M) 학위논문

율법의 불연속성과 연속성에 관한 칼빈의 이해

지도 교수 이환봉



1998년 2월

고신대학교 대학원

신학과(조직신학 전공)

 고신대학교



DM00004145

심 상 훈

심상훈의 신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주 심 신학 박사 이환봉 ⑩

위 원 신학 박사 황창기 ⑩

위 원 철학 박사 전광식 ⑩

고신대학교 대학원

1997년 12월 8일

목 차

서 론	1
1장 율법의 개념과 역할	6
1) 율법 개념	6
2) 율법의 역할	7
2장 율법의 불연속성(제한성)	13
1) 신자들에 대한 율법의 정죄 기능	13
2) 그리스도 이후의 의식법(儀式法)	14
3) 잘못된 율법의 해석들(“할라카”;Halachah)	15
3장 율법의 연속성	18
1)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폐기되지 아니한 율법	18
2) 불신자들에 대한 율법의 정죄 기능	21
3) 신자들의 생활 규범으로서의 율법	23
4장 율법주의의 극복	27
1)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	28
2)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	32
5장 율법과 윤리적인 삶	35
1) 율법 이해와 윤리적인 삶과의 관계	35
2) 율법의 용법과 삶	38
결 론	42
Bibliography	47
Abstract	51

서론

율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대단히 중요하다. “율법과 복음”은 종교 개혁자들에게 있어서 신학의 중심 주제이다.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는 율법과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참 신학자가 되게 하는 관건이요 신학의 시금석이라고 했다.¹⁾ 칼빈에게 있어서도 율법은 신학의 기본 개념의 하나이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 1판(1536년)에서 신학의 서론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논의들을 취급하고 있는 제 1장에서 “율법”을 논하고 있다. 이것은 처음부터 칼빈이 율법을 하나님을 인식하는 길과 하나님의 은총을 이해하게 하는 도정(道程)으로서 매우 중요시한 것을 잘 보여준다.²⁾ 그리고 20세기 최대의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도 “현대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율법과 복음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다”라고 규정했다.³⁾

실로 “율법과 복음”의 문제는 신학 전체를 통하여 가장 중요하고도 난해한 주제 중의 하나이다. 이 문제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여 많은 이단들과 잘못된 사상들이 속출했다.⁴⁾

1) G. Ebeling, *Luther : An Introduction to his Thought*. ET, R. A. Wilson, (Philadelphia : Fortress Press, 1970), p. 113f.

2) 전경연, 『칼빈의 생애와 신학사상』 : 복음주의신학총서 제27권 (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92), p. 110.

3) 정원태, 『율법과 복음』 (서울:기독교 문서선교회, 1990), p. 9.에서 재인용.

4) 교회사를 살펴보면, 각 시대의 교회들은 律法主義(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는 사상)와 反律法主義(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사상)의 대립과 갈등으로 점철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문제가 있는 율법관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율법주의(Legalism) : 이들은 참된 복음을 모르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어 구약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 할 것을 주장한다. 특히 할례를 받아야 이방인도 구원에 이른다는 주장인데 이는 사도 시대에도 이미 있었다. 후에 극단적인 유대 기독교는 율법주의적 요소를 더하여 에비온파(Ebionites)로 발전하였고, 극단적인 이방인 기독교는 노스틱주의(Gnosticism)로 발전하였다.

둘째, 반율법주의(Antinomianism) : 율법주의와 반대되는 입장이 반율법주의인데, 성도는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무슨 행동을 해도 관계가 없다는 탈율법적이고 극단적인 복음주의 운동이다. 이와 같은 반율법주의적 복음주의는 복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해는 구원론과 성도의 윤리와도 아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실을 보면 신앙생활의 본질과 방향을 상실하고 도덕 수준은 퇴락 일로(頹落 一路)를 달려가고 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 결정적인 이유가 아닌가 싶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자가 되고 난 후 율법에 따라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제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복된 자들이여! 이 얼마나 축복된 신분인가?”라고 외친다.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향한 그들의 태도를 잘 묘사하는 것 같다.⁵⁾

한국 교회는 개혁주의 신학을 표방하면서도 우리의 신앙과 신학의 틀 속에서는 세대주의와 루터교회처럼 은혜와 율법, 믿음과 행위가 대치되게 가르쳐 온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 같다.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율법의 위치와 기능을 간과해 왔다.⁶⁾

음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보고 율법을 필요치 않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특히 노스틱주의의 영향을 받은 말시온(Marcion)은 율법과 복음을 분리하여, 구약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나 엄격한 공의의 신으로 완전하지 못했고 이스라엘 民族神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반면 신약의 신은 선한 하나님이신데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계시했으며, 이 선한 신을 믿음으로써 율법에서 벗어나 복음에 서게 되며 구원의 길이 전개된다고 말하였다.

셋째, 펠라기우스주의(Pelagianism) : 펠라기우스는 360년에 영국에서 태어난 영국의 수도사로서, 그는 어거스틴(Augustine)의 이론 즉, 하나님의 독점적 사역인 은혜로 구원받는 것에 반대하였다. 그에 의하면, 인간은 타락 이전의 상태로 원죄없이 태어남으로 자기의 자유의지를 이용하여 하나님께서 명하신 선을 행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선행에 있어서 절대적 의미에서가 아니라 상대적 의미에서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율법은 복음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율법을 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펠라기우스의 이론은 431년 에베소 대회에서 이단으로 확정되고 그는 정죄되었다.

5) Anthony A. Hoekema, *Saved by Grace* 『개혁주의 구원론』 유효준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1), p. 371f.

6) 루터파는 특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롬3:20)는 구절을 강조한다. 따라서 이들은 율법의 정죄 기능과 몽학선생의 기능을 강조한다. 그 결과 율법은 죄 때문에 필요하지, 죄 문제를 해결받은 신자에게는 무용하다는데까지 비약되었다. 이런 생각은 루터의 제자였던 아그리콜라(Agricola)를 통해 루터 교회에 들어왔다. 그리하여 율법은 행위를 불가능하게 하고 은총은 전혀 율법을 폐기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루터파 신학의 약점은 특유의 율법관으로 선행에 대한 성경적 평가를 좌절시켜 버린 것이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신학자나 목회자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선행의 위치를 부각시킬 때 - 비록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6장⁷⁾을 따라서 가르쳐도 - 우리는 혹시 그가 이신칭의(以信稱義)의 교리를 흐리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염려하게 된다. 우리는 교회의 전통 속에서 늘 율법주의에 대한 경계와 반율법주의의 위험을 동시에 들어왔다. 어떤 의미에서 교회는 후자보다 전자의 도전에 대해 더 촉각을 세우며 지나칠 정도로 민감하였다. 그래서 누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율법의 위치를 강조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바울이 그렇게 격렬하게 싸웠던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가 아닌지 혹시 복음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자가 아닌지 혹은 행위를 은혜 위에 두려는 알미니안주의자(Arminianismist)가 아닌지 하고 의심하게 된다. 우리는 이러한 신학적인 갈등과 혼돈에서 벗어나 개혁주의의 참된 전통을 따라 믿음에 있어서 선행의 올바른 위치와 은혜에 있어서 율법의 올바른 자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한 가장 중요한 논쟁점은 “율법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⁸⁾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언약으로 주셨는데, 이 구약 시대의 율법이 은혜 시대인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가라는 율법의 연속성에 대한 질문은 신앙 성경으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제기되어 온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가져온 문제점들에 대해서 칼빈도 다음과 같이 문제를 제기하였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분명히 가르친다(롬7:6). 그러나 주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리라는 생각을 부정하셨는데(마5:17), 만일 이런 생각이 유대인 사이에 돌아다니지 않았다면 그것을 부정하시지도 않았을 것이

7)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6장은 “선행에 관하여”이다. 그 내용을 몇 가지만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1항은 이렇게 시작한다. “선행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말씀 가운데서 명령하신 것이다.” 2항은 이렇게 시작한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서 행해지는 이 선행은 참되고 살아 있는 신앙의 열매의 증거이다.” 그리고 마지막 7항은 결론 부분에는 이런 구절이 나온다. “선행을 게을리 하는 것은 더욱 죄를 짓는 것이며 하나님을 노하시게 한다.”

8) 현대의 극단적인 율법론은 크게 둘로 볼 수 있는데 율법의 불연속성을 강조하는 세대주의 율법론과 율법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신율주의 율법론이 있다.

다. 아무 구실도 없이 우연히 그런 생각이 생겼을 리가 없으므로, 아마 그리스도의 교훈에 대한 오해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도 똑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율법 가운데서 폐기된 것과 아직도 유효한 것을 정확히 구별해야만 할 것이다.⁹⁾

칼빈은 그의 여러 저술들 속에서 이러한 율법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율법의 연속성을 강조하면서도 율법주의를 극복하는 성경적인 율법관을 확립하였다. 칼빈은 율법의 해설자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의 율법관은 탁월하다. 그러나 이러한 탁월성에도 불구하고 칼빈의 율법관에 대한 연구는 부진한 편이다.

국내의 칼빈연구 문헌들을 살펴보다도 칼빈의 율법관을 직접적으로 심도있게 다룬 것을 찾아보기 힘들다.¹⁰⁾ 그리고 칼빈주의를 표방하는 한국의 교회들이 율법론에 있어서는 칼빈주의의 전통에 충실하지 못한 형편이다. 국외에서도 주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칼빈의 율법관에 대한 연구가 매우 희소하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근년에 이르러 I. John Hesselink¹¹⁾에 의해서 칼빈의 율법의 제3용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것을 제외하고는 칼빈의 율법관에 대한 연구서는 매우 부진하다. Calvin Theological Journal이 1971년 이래로 매년 11월호에 칼빈 관련 서적 목록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연감에서도 칼빈의 율법에 대한 연구와 관련된 목록들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 외에 칼빈 관련 저서 가운데서 칼빈의 자연법 혹은 십계명과 같은 율법에 대한 접근에 관한 것을 다루는 몇 편의 에

9) Inst, II, vii, 14. 칼빈의 『기독교 강요』 2권 7장 14항을 표기한 것임. 이후에도 이렇게 표기할 것임.

10) 이상규편, 『한국에서의 칼빈 연구 100년』 (서울:개혁주의신행협회,1985) ;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편, 『한국신학관계 석박사학위 논문목록집』 (서울:나눔사,1993) ; 김광옥, 『도표로 보는 한국 칼빈 자료 100년사』 (서울:성광문화사, 1994)를 참고하라. 칼빈의 율법관과 관련된 논문은 고신대원 이희용의 『복음과 율법에 대한 M. Luther와 John Calvin의 이해 연구』와 아세아연신대원 권애희의 『칼빈에 있어서의 성화와 율법의 위치』라는 논문이 있을 뿐이다. “칼빈의 율법관”을 직접 다룬 논문은 거의 없는 편이다.

11) 그는 칼빈의 율법관을 직접 다룬 학자이다. 그는 『칼빈의 율법 개념』(Calvin's concept of the Law)이라는 책을 썼다. 이 책은 율법에 관한 교과서처럼 많은 주제들을 함께 다루고 있다.

세이를 발견할 뿐이고,¹²⁾ 율법의 불연속성과 연속성에 대한 글은 찾아보기 어렵다.

필자는 이 논문에서 율법의 불연속성과 연속성에 대하여 칼빈의 저술들(특히 기독교 강요와 그의 주석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그가 율법주의를 극복하면서도 어떻게 역동적으로 율법을 이해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칼빈의 율법 이해를 통해서 율법이 더 이상 필요없다는 “극단적인 복음주의”¹³⁾와 “극단적인 율법주의”를 극복하고, 성경적이며 균형잡힌 신앙과 생활을 확립하는 데에 유익을 얻고자 한다.

이 논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서술하였다. 먼저 1장에서는 칼빈 신학에 있어서 율법의 개념과 역할을 살펴보면서 그가 율법의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해했는지, 그리고 그의 신학에서 율법의 역할이 어떠한지를 살펴볼 것이다. 오늘날 한국 교회 성도들 뿐 아니라 심지어는 강단에서 설교를 하시는 분들조차도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혼돈하는 부분이 바로 율법의 불연속성과 연속성에 관한 것이 아닌가 싶다. 율법은 불연속성과 연속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서 율법에 대한 오해와 혼돈을 극복해 보고자 한다. 그래서 2장과 3장에서는 율법의 불연속성과 연속성에 대해서 칼빈이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칼빈은 율법의 불연속성과 연속성을 함께 다루면서도, 특별히 율법의 제3용법을 강조한다. 그러다 보니 율법주의자라는 오해를 받기도 한다. 4장에서는 그가 율법을 강조하면서도 어떻게 율법주의를 극복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끝으로, 5장에서는 올바른 율법 이해와 성도의 윤리적인 삶의 관계를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12) I. John Hesselink, *Calvin's Concept of the Law* (Pennsylvania: Pickwick Publications, 1992), p. ix.

13) 오늘날 한국 교회에는 율법이 더 이상 필요없다는 “극단적인 복음주의”가 만연되어 있다. 신자들의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삶이 지탄을 받는 일이 다반사(茶飯事)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율법에 대한 오해로 빚어진 것이다. 그리고 율법을 조금만 강조해도 율법주의자로 오해받는 현실 역시 마찬가지이다.

1장 율법의 개념과 역할

1) 율법 개념

칼빈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라는 종교적인 관점에서 율법¹⁴⁾을 보았다. “율법이란 사람의 경건하고 의로운 삶의 규범을 제시하는 십계명뿐만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전해 준 종교의 형식”¹⁵⁾이라고 정의했다. 다른 곳에서는 “율법이란 말은 의로운 생활 법칙, 곧 십계명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다른 모든 민족으로부터 구별하신 언약과 모세의 가르

14) 구약에서 율법에 대한 대표적인 용어는 ‘토라’(תּוֹרָה ; torah)인데 이 ‘토라’는 יָרָא (yara; 던지다, 활을 쏘다)라는 동사의 히필(Hiphil)형인 הִוָּרָה(hora; 가르치다, 지시하다)에서 유래된 단어로써, ‘방향’ 또는 ‘지도’를 의미한다. 이 말은 구약에서 220번 나타나며 70인역(Septuagint; LXX)에서는 νόμος로 번역되었다. 본래 이 말은 제사장이나 예언자가 주는 개개의 지시, 가르침을 의미했으나, 완성된 구약 성경에서 ‘토라’는 전문적으로 오경 즉 율법 본문을 포함하는 구약의 앞부분을 가리켰다. 후에는 어떤 규정, 법, 법령집 등을 가리키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서는 법조문이라기보다는 일종의 한 긴 잔통의 축적이 되었다. ‘토라’는 단수로서 하나의 ‘법’을 의미하나 복수로서도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그러나 단수로서 하나님이 주신 법 전체를 의미하는 말로 자주 사용되기도 한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토라’란 용어를 모세 오경과 성경 전반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지뿐만 아니라 그 의지를 당시의 환경에서 해석한 율법 교사들의 구전(口傳)까지도 포함한 의미로 사용하였다. 구약에서 תּוֹרָה 이외에도 율법을 의미를 가지는 히브리어는 ‘미츠바’(מִצְוָה : 명령들), ‘다바르’(דְבָרִים : 말씀, 출34:28), ‘호크’(חֹק : 법령), ‘미슈파팀’(מִשְׁפָּטִים : 심판들), ‘에다’(עֵדוּת : 증거 혹은 증언), ‘피쿠딤’(פְּקֻדֹת : 교훈들) 등이 있다.

신약에서 율법에 대한 대표적인 용어로는 νόμος(nomos)인데 이는 νέμω(할당하다, 분배하다)에서 파생된 명사로서, 일반적으로 ‘적당한 것’, ‘어떤 사람에게 할당된 것’이란 의미를 가진다. 이 νόμος는 고대 그리스에서는 ‘존재하거나 용인되는 기준, 규칙, 관습, 풍속’ 또는 ‘사용, 전승의 의미’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던 용어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νόμος가 70인역에 와서 구약의 ‘토라’를 나타내는 단어로 번역되었다. 공관 복음에서는 νόμος는 용어가 모두 구약의 율법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바울 서신에서는 어떤 경우에는 구약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모세의 율법을 의미하기도 하며, 어떤 때는 십계명을 의미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신약에서 νόμος는 구약의 모세 오경을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의미한다. 즉 νόμος는 구약에서 율법을 의미하던 단어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용어로 사용되었다.

15) Inst., II, vii, 1.

침 전체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다.¹⁶⁾

이와 같이 율법이란 구체적인 계율만을 가리키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넓은 뜻으로 유대교의 하나님 신앙의 종교 형식을 의미한다. 모세의 종교는 언약과 예배에서 성립된다. 율법은 언약과 예배를 가르치는 것이다.¹⁷⁾

칼빈은 율법을 근본적으로 언약으로서 이해한다. 율법은 단순히 인간이 잘 살아 나갈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계율들을 모아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언약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¹⁸⁾ 모세의 율법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주신 은혜스러운 구약의 모든 언약의 회상(回想)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¹⁹⁾ 즉, 모세의 사명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갱신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속박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인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지니도록 하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다.²⁰⁾ 이같이 율법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의 갱신이며 그리스도의 은총을 지시한다는 점에서 존엄성을 가진다.

다음으로 모세의 종교는 예배 의례에서 존속한다. 율법은 예배의 의례를 제정한다. 모세의 율법은 도덕법과 의식법을 포함하는데 결국 율법은 행위와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두 가지 점에서 율법은 모세의 종교의 형식이다. 그러므로 율법은 단순한 계율이나 은혜 언약을 회상시켜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의 소망을 격려함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 주신 것이다.

2) 율법의 역할

칼빈의 저술들을 살펴볼 때 칼빈은 율법의 역할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

16) Comm. on Psalms 19:7. 이는 『칼빈 주석』 시19:7을 표기한 것임. 이후에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표기할 것임.

17) 정경연, 『칼빈의 생애와 신학사상』, p. 111.

18) Inst., II, vii, 2.

19) Inst., II, vii, 1.

20) Inst., II, vii, 1.

고 있다. 기독교 강요의 구조와 모세 오경의 주석을 살펴보면 칼빈이 이 주제에 얼마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 알 수 있다. 칼빈은 그의 작품들에서 율법의 역할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1)기독교 강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 초판(1536)은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²¹⁾ 그 중에 제일 첫 장에서 율법을 주제로 다루었다. 그는 율법을 논하면서 먼저 율법의 목적을 고찰했는데 그는 십계명을 간략하게 강제한 후에 율법의 의미와 목적에 관한 설명에서 3가지 방식으로 설명했다.

첫째, 죄에 관한 지식을 일깨워 준다. 둘째,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통해서 불경건한 자들을 억제한다. 셋째, 신자를 위한 용법으로 생활의 규범과 안내자가 된다. 이와 같이 칼빈은 기독교 강요 초판에서 율법의 삼중 용법(*triplex usus legis*)²²⁾을 가르쳤다.

“기독교 강요” 최종판(1559)에서도 제 2권 “구속자이신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서 기본적인 주제로 율법을 다루고 있다. 칼빈의 신학에 있어서 율법이 차지하는 위치는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율법은 죄(罪)의 문제와 구속(救贖)의 문제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²³⁾ 칼빈이 놀랍게도 기독교 강요 제 3권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길”에서 보다는 오히려 제 2권 “구속자이신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서 율법을 더 중요하게 다루었다. 이것은 그가 율법을 단순히 윤리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²⁴⁾

율법은 인생의 죄를 드러내어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한다. 율법은 죄

21) 기독교 강요 초판은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장 율법, 2장 신앙, 3장 주기도, 4장 복음적인 성례, 5장 카톨릭의 잘못된 성례, 6장 기독교인의 자유 등이다.

22) 이 용어는 멜랑크톤이 그의 작품 *Loci communes*(1535판)에서 먼저 사용했으며, 1577년 발표된 루터교의 화해의 신앙고백(*Formula of Concord*)에도 나타난다.

23) I. John Hesselink, *Calvin's Concept of the Law*, p. 8.

24) 그렇다고 윤리적 차원을 소홀히 하지는 않는다.

와 관련있을 뿐 아니라 구원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한다. 뿐만 아니라 율법은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생활의 규범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칼빈은 율법의 제3용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구원받은 자에게 율법은 생활의 근본이며 동기이며 목표라고 생각했다.²⁵⁾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생들에게 계시하신 것이기 때문이다.

(2)교리문답(Catechisms)

칼빈에게 있어서 율법의 기능은 기독교 강요 보다는 교리문답에서 더 명백히 알 수 있다. 칼빈의 교리문답은 1537년 초판과 1542년판이 있다. 초판에서 칼빈이 처음으로 율법을 소개한 곳은 7절(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으며 생명을 회복하는가?”에서였다. 여기서 그는 율법의 제 1용법인 정죄의 기능과 몽학선생의 기능을 강조한다. 그러나 17절(節)에서는 율법을 성화와 관련시키고 있다 : “우리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어 율법을 순종하게 된다”(We are sanctified through faith in order to obey the law). 여기서 칼빈은 율법의 제 3용법을 논하고 있다.

1542년 판인 제네바 교리문답에서는 그 구조를 조금 변경해서 4부로 나누었다. 1부는 신앙에 관하여, 2부는 율법에 관하여, 3부는 기도에 관하여, 4부는 성례전에 관하여 다루었다. 여기서 율법의 제 3용법은 칼빈의 문헌 중에 가장 현저하게 나타난다.

칼빈은 대개 다음과 같은 개념의 틀로서 율법을 설명했다. 즉, 죄에 대한 미움(hatred of sin), 의에 대한 사랑(love of righteousness), 하나님을 경외함(the fear of God), 자진하여 고행함(selfmortification), 성령의 지배를 받음(being ruled by the Holy Spirit),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obedience to the will of God) 등이다.²⁶⁾ 그러나 칼빈에게 있어서 율법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법칙”(regula) 혹은 “규범”(norma)의 개념이다. 왜냐하면 칼빈은

25) Inst., IV, xx, 15; III, xix, 2; II, vii, 13.

26) I. John Hesselink, *Calvin's Concept of the Law*, p. 15.

하나의 법칙으로서의 율법을 우선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칼빈은 교리문답 제 7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참된 규범은 그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리문답의 2부 “율법에 관하여”의 첫 질문인 131문에서 칼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활의 법칙으로 무엇을 주셨는가?” 라고 물었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칼빈은 “하나님의 율법이다”라고 했다. 이와 같이 칼빈은 교리문답에서 율법의 제 3용법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3)칼빈의 주석

주석과 같이 비조직적인 것에서 어떤 지침을 발견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가치 있는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칼빈은 독특한 일을 했는데, 그는 모세의 4권(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책을 조화있게 정리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주석을 썼다. 이것이 『*Commentaries on the four last books of Moses in the form of a harmony*』이다. 여기서 관찰해야 할 중요한 것은 칼빈의 자료 정리 방법이다. 서론에서 칼빈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이 네 책은 두 가지 형태의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는 역사적 이야기(historical narrative)와 다른 하나는 교리(doctrine) 혹은 교훈(teaching)이다.”²⁷⁾

칼빈은 교리를 다음과 같이 4부분으로 분류를 했다. 첫째는 모세에 의한 율법의 존엄성과 권위의 위탁을 포함하는 서문이다. 둘째는 십계명인데 하나님은 이 안에 공정하고 거룩한 생활의 규범을 간략하지만 완전하게 포함시키셨다. 셋째는 부록으로 이루어져 있는 제 3의 부분인데 여기에는 의식법과 재판법을 포함한다. 넷째는 율법의 목적과 용법인데 칼빈은 여기서 주로 책망을 위한 용법(*usus elencticus*)의 관점에서 다루었다.

칼빈은 십계명을 추상적으로 보지 않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

27) John Calvin, *Commentaries on The four last of Moses in the form of a harmony*, transed C. W. Bingham (Michigan: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p. xv .

하게 주어지는 계시라는 관점에서 보았다. 더욱이 칼빈은 율법의 대의에 관한 특별한 절(節)로 십계명 강해를 마무리 지었다. 그는 신6:5; 10:12,13 그리고 레19:18과 같은 구절을 대조하면서 그리스도는 사랑(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외에 율법에 의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선언하셨다는 사실을 유념했다. 그러므로 칼빈의 율법에 대한 높은 평가는 기독교 윤리의 심장에 사랑을 놓으려는 시도일 뿐 다른 어떤 의미도 없다고 할 수 있겠다.

(4)예식서(Liturgy)

칼빈이 그의 Strasbourg Liturgy에서 율법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살펴보는 것은 유익하다. 칼빈이 1538년 Strasbourg에 갔는데 사실 그는 제네바 시에서 추방되어서 그 곳으로 간 것이었다. 거기서 그는 프랑스에서 망명(亡命) 온 자들의 교회의 목회자가 되었다. 그는 이 때에 예식서가 필요해서 Bucer의 독일 예식서(German Liturgy:1537)를 채택하여 사용하였는데 그는 이것을 불어로 번역하였다. 그런데 칼빈은 약간의 변화를 주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십계명을 노래로 부르는 것을 도입하였다. Bucer의 독일 예식서에는 십계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칼빈은 그의 예식서에 십계명을 과감하게 삽입했던 것이다. 그의 예식서에서는 죄의 고백(confession of sins)과 사죄의 선언(absolution) 이후에 십계명을 낭송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로 불렀던 것이다.²⁸⁾ 이와 같이 그는 예식서에서도 율법의 제 3용법을 강조했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칼빈의 대표적인 저술들 속에서 율법의 역할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칼빈의 많은 문헌들 속에서 율법이라는 용어의 용법은 그 문맥에 따라서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제네바 교리문답에서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의 의지에 순종하는 것”에 관해서 함축된 의미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칼빈은 율법(Law)의 자리에 의지(Will)를

28) I. John Hesselink, *Calvin's Concept of the Law*, p. 18.

사용하고 있다.²⁹⁾ 율법을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한 것은 하나님의 의지 속에서 율법의 기원과 근거를 찾을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신다. 율법은 율법의 수여자(授與者)이신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영원하며 완전하다. 뿐만 아니라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것이다. 이런 율법이 왜 불연속성과 연속성을 띠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율법이 성취되었으므로, 그 대상과 시대에 따라 율법의 적용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이제 율법의 불연속성과 연속성에 대해서 다음 장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29) Inst., I, xvii, 2; II, viii, 5; II, viii, 59 ; Comm. on Psalm73:16; 1 John2:7.

2장 율법의 불연속성(제한성)

율법은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수여하신 의도는 우리를 멸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는 것이다.³⁰⁾ 이처럼 본래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신령한 것이다(롬7:12,14).

율법은 불연속성과 연속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오해하거나 혼돈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칼빈은 이 부분을 선명하게 구별해 주고 있다. 이러한 율법의 불연속성에 대한 칼빈의 이해를 살펴보자.

1) 신자들에 대한 율법의 정죄 기능

어떤 의미에 있어서 신자들은 율법에서 해방되었다. 롬6:14에서 이 사실을 명백하게 말한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여기서 “법 아래 있다”는 것은 죽은 문자가 우리를 정죄한다는 것을 뜻한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율법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것은 율법이 우리에게 의(義)를 요구하지만 우리는 그 요구대로 율법을 복종하지 못해서 사망 선고를 당한 상태를 말한다. 이런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칼빈은 은혜라는 말을 구속의 두 요소로 이해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전가시켜 주는 수단인 죄의 용서와 그가 우리를 새롭게 빚어 선한 일을 하게 하는 방편인 성령의 성화로 생각했다.³¹⁾ 이와 같이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울은 갈3:10에서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

30) Inst., II, vii, 8.

31) Comm. on Rom 6:14.

록된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 영원한 저주 - 아래 있는 자”라고 지적한다. 율법을 범한 사람은 율법의 철저한 벌을 받아야 하는데 어떠한 범행이든지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무서운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완전하게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다(갈 3:13-14 ; 신21:23).³²⁾ 그리스도는 그의 전 생애를 통하여 그리고 특별히 십자가 위에서 저주를 당하는 고난에 의해서 우리를 위한 저주가 되셨다. 이 예수를 믿는 신자들에게는 율법의 정죄 기능이 폐기되었다. 이와 같이 율법의 적용이 신자들에게는 불신자들과는 다르게 적용되어진다. 즉 율법이 신자들에게는 더 이상 공포심을 불러넣으며 당황하게 만들어 그들의 양심을 정죄하며 파멸에 몰아 넣지 못하게 된 것이다.³³⁾

따라서 신자들이 자신의 구원을 위한 노력의 방편으로써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졌다는 의미에서 신자들은 참으로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러므로 신자들에게는 더 이상 율법의 정죄 기능이 적용되지 않고 제한적이다.

2) 그리스도 이후의 의식법(儀式法)

통상 율법은 도덕법, 시민법(재판법), 의식법으로 구분된다.³⁴⁾ 이 율법은

32) Inst., II, vii, 15.

33) Inst., II, vii, 14.

34) Inst., IV, xx, 14. 율법은 선민에게 특별히 계시된 도덕법(십계명) 과 각종 민사법과 재판법과 의식법을 포함한다(Inst., IV, xx, 14-16). 칼빈은 무엇보다도 도덕법은 의(義)의 진정하고 영원한 원칙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었다(Inst., IV, xx, 15). cf 서철원,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 (서울:엠마오, 1987), p. 84.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9장에도 율법을 이렇게 분류했다.

그러나 율법을 세 부분으로 나누는 것은 문제점도 없지 않다. 왜냐하면, 율법을 의미하는 용어인 ‘토라’(תּוֹרָה ; torah)나 ‘노모스’(νόμος)가 성경에서는 주로 단수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율법을 세분하지 않고 통일성 있게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사실 율법을 세 부분으로 나누는 것은 난해한 율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도한 전형적인 조직신학적 구별의 산물이다. 그렇다고 율법을 삼분하는 것이 완전히 틀렸다는 의미는 아니다. 율법에는 분명히 도덕법과 의식법과 시민법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을 기계적으로 나누기보다는 서로 구분은 할 수 있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마침이 되었다(롬10:4). 즉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율법의 역할이 성취되었다. 율법은 그림자요, 그리스도는 실체이기에 율법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의식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³⁵⁾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위하여 단번에 영원하고 완전한 한 제사를 십자가 위에서 드림으로 성취되어졌기 때문이다(히10:1). 바울은 의식 준수가 무용할 뿐 아니라 또한 유해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의식은 그림자요 그 본체는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가르친다(골2:17).

그러나 의식들은 효과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사용하지 않게 되었을 뿐이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옛 언약에 나타난 의식들은 폐지되었지만, 그 내용은 폐지된 것이 아니라 그 유용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런 점에서 의식법은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³⁶⁾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의식법은 폐지되었다. 그림자와 같은 의식법들이 실체 되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더 이상 필요없기 때문에 폐지되었다. 이런 점에서 의식법의 불연속성을 말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의식법이 폐지되었다고 해서 그 의미가 상실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의식법의 의미는 더 강화되고 효력은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다. 따라서 의식법의 본질과 정신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실현되어야 할 요구로 나타난다. 이런 점에서 의식법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에서 연속성을 말할 수 있겠다.

3) 잘못된 율법의 해석들(“할라카”;Halachah)

유대인들은 율법과 할라카(Halachah)³⁷⁾가 동일한 권위를 가지는 것으로

만 서로 유기체적인 관계를 가진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35) Inst, II, vii, 16.

36) 그러나 구약 시대에 행해지던 의식법이 오늘 신약 시대에는 더 이상 행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연속성에서 다루었다.

37) Buttrick, G. Arthur, *The 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 Vol. 2, (Nashville : Abingdon Press,1982), p. 512. 영어로는 Halachah 혹은 Halakah로 표기한다. 히브리어로는 [הלכה], from root to walk, 출18:20에서 유래]로 표기한다. 할라카는 도덕법과 의식법에 나타나는 것처럼 권위있는 유대인의 생활 방식이다. 그것은 유대인의 가르침, 법률, 그리고 관습의 전(全)체계를 포함한다. 이것은 에스라 이후 모든 세대들의 유대 랍비들의 계속되는 계승을 통하여, 성경 율법의 해석과 재해석에서 유래되었다 ; 그것은 이따금 영적

생각했다. Halachah의 한 예로서, 정결법과 결례를 들 수 있다. 본래는 제사장들의 의식법이었는데 나중에는 손만 씻으면 깨끗하게 된다는 정결법이 되어 제사장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사람들도 나쁜 것을 하고 난 뒤에 손만 씻으면 깨끗해진다는 유대인의 의(義)개념으로 발전되었다. 그들이 예수님께 덤벼들 때에도 바로 이 Halachah를 권위있는 말씀(율법)처럼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다(마15:1-9).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Halachah를 지키지 않는다고 의분을 토하기도 했으나 예수님은 이런 주장들을 단호히 배격하셨다(마15:8-9).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강조했던 손을 씻는 유전은 그 자체가 타락된 미신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 의식이 허용되지 않았더라면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그리스도께서는 그 물 항아리들을 그 곳에 세워 두지 못하게 하셨을 것이다.³⁸⁾ 그들의 과오는 이 씻는 의식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데에서 기인한다.

그들이 Halachah를 생각하게 된 배경을 칼빈은 이렇게 설명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의함에 따라 지키는 많은 관례들이 있었다. 마치 하나님의 단순한 명령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이 관례들은 주의깊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바 이차적인 법이었다.³⁹⁾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모종의 조심스러운 규칙들을 부가적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어떤 새로운 것을 끼쳐 준다고 주장할 수가 없었다. 부패는 바로 이런 일들의 뒤에 곧장 따라 들어왔다. 사람들에게 의해서 소개된 의식들이 신성한 예배의 일부로 생각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자유롭게 행하는 일에 필연성을 부여하게 된 것이다.⁴⁰⁾

지도자들에 의해서 경제적, 가정적, 정치적, 사회적 생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적용(개조)했던 것들 혹은 변형한 것들도 포함한다. 이와 같이 할라카는 율법에 대한 해석으로 볼 수 있다. 한글 개역성경에서는 “장로들의 유전”(마15:2; 막7:3,5)으로 번역하고 있다.

38) Comm. on Matt 15:2.

39) Ibid.

40) Ibid.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말씀 안에 정해 놓으신 대로 예배를 받고자 하시며 자기의 법에 덧붙여지는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이 외형적 의식을 갖는 것을 허용하시지만 마치 그 의식 안에 어떤 경건성이 있는 것처럼 이 의식들을 자기의 말씀에다 혼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하신다.⁴¹⁾ 따라서 칼빈은 잘못된 Halachah는 예수님이 폐하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칼빈이 이해했던 율법의 불연속성의 입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신자들에게는 율법의 정죄 기능이 불연속성을 띤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저주를 받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의식법이 불연속성을 띤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예표하던 의식들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림자와 같은 의식(儀式)들이 그 의식들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폐지되었다. 끝으로, 예수님이 단호하게 배격하셨던 것은 잘못된 율법 해석인 할라카이다. 예수님은 율법의 의미를 왜곡시키고 율법의 본질적인 의미를 가리던 장로들의 유전을 단호하게 거부하셨다.

41) Ibid.

3장 율법의 연속성

율법 자체는 변하지 않고 한결같은 율법인데 인생들의 타락으로 인하여 율법의 용법이 달라지게 되었다. 율법은 그 대상에 따라서 그 용법이 다르다. 즉, 불신자와 신자에게 그 용법이 다르게 적용된다. 그리고 율법의 용법이 그리스도 이전과 그리스도 이후에 그 적용 방법이 다르다. 즉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간에 그 기능과 용법이 다르다. 이는 그리스도가 율법을 이루셨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이전까지는 모든 하나님의 구원 섭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몽학선생의 역할을 감당했지만, 그리스도 이후에는 믿는 자들의 윤리적, 도덕적 생활 규범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율법은 불연속성을 가질 뿐 만 아니라 연속성도 함께 가지고 있다. 이 장에서는 율법의 연속성에 대한 칼빈의 이해를 살펴보도록 하자.

1)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폐기되지 아니한 율법

모세 율법에 관한 예수님의 언급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결코 율법의 폐기를 주장하지 않으셨다.⁴²⁾ 나아가서는 율법의 폐기가 그분의 의도가 아님을 분명히 하셨다. 예수님께서서는 자기가 율법을 폐하리라는 생각을 부정하셨는데, 자신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러 함이라”고 하시면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선언하셨다(마5:17-18). 이와 같이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다 더 철저하게 율법에 따라서 살 것을 요구하셨다.⁴³⁾ 즉,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킬 것이 아니라 율법이 근본적으로 의도하는 공의와 자비와 절제를 구체적으로 실행할 것을 요구하신 것이다(눅11:42; 18:18-22).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는 율법을 준행함에 있어서

42) Inst., II, vii, 13,14.

43) Comm. on Matt 5:17-19.

악한 견해를 백성에게 감염시켰다. 율법에 위반되는 외면적인 행동을 하지 않은 사람은 율법을 완수한 것이라고 했다.⁴⁴⁾ 그러나 이런 가르침은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외식적인 신앙행태(信仰行態)를 초래하게 되었다. 칼빈은 외식적인 율법 준수가 율법의 성격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렇게 지적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신령한 것이다(롬7:14). 이 율법은 우리의 영혼을 상대로 내린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바르게 지키려면 우선 영혼을 억제해야 한다. 즉,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의지의 복종을 요구할 뿐 아니라, 천사같은 순결을 요구한다.⁴⁵⁾

그러므로 예수님이 거부하신 것은 율법 자체가 아니라 율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 근거한 “할라카”이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율법 해석을 지적하시고 교정해 주셨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의미를 회복시키려고 오신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우리는 율법의 가장 훌륭한 해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⁴⁶⁾. 뿐만 아니라 율법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재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

마태복음5:17-19에서는 특별히 도덕법인 십계명을 강조하고 있다. 도덕에 관한 율법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생활을 정리하고자 하는 모든 민족과 모든 시대의 사람을 위해서 정해 주신 의의 표준 곧 참되고 영원한 표준이다.⁴⁷⁾ 하나님의 영원불변한 뜻은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자는 십계명을 행위의 규범으로 삼는다. 십계명을 적용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율법을 성취하셨다는 점을 고려해야만 한다. 특별히 4계명은 이 점에 있어서 유의

44) Inst., II, viii, 7.

45) Inst., II, viii, 6.

46) Inst., II, viii, 7.

47) Inst., IV, xx, 15.

해야 한다. 오늘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칼빈은 이 문제를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구약의 안식일이 대표한 진정한 안식은 주의 부활에서 그 목적이 실현되었다. 그러므로 그림자를 끝낸 그 날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그림자였던 의식을 고수하지 말라는 경고가 된다.⁴⁸⁾

아직까지도 안식일을 고집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의 빛을 그만큼 흐리게 하는 결과가 된다.⁴⁹⁾

의식법은 유대인들에게 후견인과 같았다. 여호와께서는 이를테면 유년기에 있는 유대 민족을 의식법으로 때가 찰 때까지 훈련하는 것을 좋게 생각하셨다(갈4:3-4, 3:23-24참조).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때가 차면 모든 민족에게 자신의 지혜를 완전하게 나타내며, 그 때에 비유로 예표하신 일들의 실체를 보이려고 하셨다.⁵⁰⁾ 이런 의식법은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폐지되었지만 그 의미는 여전히 남아 있다. 제사 제도나 다른 모든 의식들이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폐지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결코 그 의식들의 신성함을 손상시키지 않는다. 실제로 그러한 사실 때문에 종교의식들의 가치는 더욱 더 높게 평가된다.⁵¹⁾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의식들을 사용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하셨지만, 그의 보혈로써 율법의 능력을 확증하셨다.⁵²⁾ 그러므로 구약의 의식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더 이상 필요가 없지만 의식법의 정신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오늘날의 예배 정신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재판법(시민법)은 도덕법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적용한 것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통치를 위해서 주신 것이었으며, 그들이 허물없고 평

48) Inst., II, viii, 34.

49) Inst., II, viii, 33.

50) Inst., IV, xx, 15.

51) Inst., II, vii, 16.

52) 특별히 유월절의 어린양의 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예표하는데, 처음 유월절의 어린양의 피가 멸하는 자들이 넘어가는 효력을 나타내었다면, 그림자가 아닌 본체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훨씬 더 큰 능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화롭게 살 수 있도록 지켜야 할 공평과 공의의 형식들을 정하신 것이었다. 이 재판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써 현재는 그 용도가 폐지되었지만 그 공평성과 정신만은 여전히 유효하다.⁵³⁾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재판법은 폐지되었지만, 율법의 핵심인 사랑해야 한다는 영원한 의무와 교훈은 여전히 남아 있다.⁵⁴⁾ 각 민족은 자체에 유익이 있다고 예상되는 법을 만들 자유가 있다. 그러나 이런 법은 사랑이라는 영원한 표준에 일치해야 하며 형태는 다를지라도 목적은 같아야 한다.⁵⁵⁾

이상과 같이, 율법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연속성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2) 불신자들에 대한 율법의 정죄 기능

율법은 거울과 같다. 우리는 이 거울을 들여다봄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되고 이르는 동안에 여기에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급기야는 저주 아래에 놓여 있는 자신을 보게 된다. 그런데다가 하나님의 의(義)를 수행할

53) 이에 대해서 신율주의자들은 율법의 연속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율법이 현대 사회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신율주의(Theonomy)는 본래 미국에서 정치적인 협의의 사항을 가진 하나의 정치운동이었다. 이들이 주장하는 핵심은 모세의 시민법과 형법들을 오늘날의 미국법으로 적용하기를 요구한 것이었다. 신율주의자들은 이렇게 주장한다 ; 모세 율법은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표현하며 어느 민족도 그의 율법을 지킴으로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복을 받게 된다.

신율주의 운동의 기초를 놓은 사상가로는 Rousas J. Rushdoony이다 Greg Bahnsen과 Gray North같은 다른 학자들은 Rushdoony의 작업을 정교하게 만들거나 수정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스스로 칼빈의 전통 속에서 교회 개혁을 추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많은 점에서 칼빈과 형식상으로는 일치한다. 그러나 내용상으로는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들은 구약의 율법을 현대 사회에 그대로 적용하려는 것은 무리한 요구이다. 칼빈은 결코 신율주의자들처럼 율법을 그렇게 다루지는 아니했다. 그렇지만 신율주의자들이 율법의 중요성을 고취시켜 준다는 점에서는 그 기여를 인정해야 한다.

신율주의에 관련된 도서를 몇 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Rousas J. Rushdoony의 『The Institutes of Biblical Law』; Greg Bahnsen의 『Theonomy in Christian Ethics』; 그리고 신율주의를 평가한 책으로서 William S. Baker & W. Robert Godfrey 가 편집한 『Theonomy - A Reformed Critique』가 있다.

54) Inst., IV, xx, 15.

55) Ibid.

수 없다는 좌절감에 사로잡힌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범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우리의 책임을 묻는 하나님의 심판도 더욱 엄중하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고 한 사도의 발언은 여기에 해당한다(롬 3:20). 그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율법의 첫째 기능, 즉 아직 중생하지 않은 죄인들이 경험하는 바이다.⁵⁶⁾

여기서 율법과 믿음의 관계를 살펴보자. 율법의 정죄 아래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롬3:19). 율법은 모든 인생의 죄를 드러내는 기능이 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롬5:20). 그래서 율법은 “죽게 하는 직분”으로서(고후3:7) 진노를 이루게 하며(롬4:15) 죽인다. 율법 자체만으로는 죄를 고발하며 정죄하며 멸망시킬 수 있을 뿐이다. 어거스틴의 말과 같이 “은총의 영이 없으면 율법은 우리를 고발하며 죽이기 위해서 있을 뿐이다.”⁵⁷⁾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법을 하나 주셨다. 우리 대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실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심으로 우리는 은혜 시대에 속하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입게 된다. 우리 스스로 율법의 요구대로 율법을 온전히 지키므로 의에 이르지 못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의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믿음 안에 있는 자는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은 은혜 시대이지만 아직도 은혜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의 정죄 기능이 살아 있다. 즉 그리스도를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율법의 길이 계속 남아 있다. 아직도 그리스도밖에 있는 자들은 오직 율법을 온전히 지키으로써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그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일은 불가능하

56) Inst., II, vii, 7.

57) Ibid.

다.58) 그러므로 먼저 은혜 시대에 들어간 사람들은 아직도 은혜 안에 들어 오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전도에 힘써야 할 것이다. 율법의 정죄 기능이 불신자들에게는 여전하다는 점에 연속성을 말할 수 있겠다.

3) 신자들의 생활 규범으로서의 율법

예수 믿고 거듭난 자들에게 있어서 율법(도덕법)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살펴보자. 어떤 의미에서 신자들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신자들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데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칼빈은 신자들의 생활에 있어서 율법의 이같은 용도는 세 번째 주요 기능임을 확인하였다.

율법의 세 번째 용도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율법의 본래 목적에 더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으며, 이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영혼 속에서 이미 살아서 통치하고 있는 신자들에게 관계된 것이다. 율법은 신자들이 사모하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더 철저하게 익혀 가며 그것을 납득하여 확신케 하는데 최선의 도구가 된다. 다음에 우리는 교훈뿐만 아니라 권면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역시 율법의 이런 유익이 그 자신의 것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59)

칼빈은 율법 중에서 도덕법은 “의의 진정하고 영원한 원칙”이며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다.60) 이 도덕법은 성화의 길을 가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생활의 규범이자 안내자의 역할을 한다.

신구약 성경은 모두 도덕법인 십계명과 친밀함을 보여준다.61) 십계명은 “율법 안에 있는 율법”이라고 불리어져 왔다. 칼빈은 신자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십계명을 통해서 분명히 표현되었다고 보았다. 신약 성경은 신자들이 받은 축복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율법 지키는 것을 강조한다. 우

58) Comm. on Rom 3:9-20. cf. 고재수, 『개혁주의 입장에서 본 십계명 강해』, (서울:여수론, 1991), p.123.

59) Inst., II, vii, 12.

60) Inst., IV, xx, 15.

61) 렘7:9; 호4:2; 마19:18-19; 롬13:8-10; 딤후1:9-10; 약2:11 등.

리는 이런 지시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의 첫째임을 발견한다. 산상보훈에서 예수님은 십계명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활 규범이라는 것의 의미심장하게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마5:19). 그의 제자들에게 율법에 관한 복종을 가르치지 않거나, 어떤 부분에서라도 율법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자들은 거짓 교사라고 말씀하고 계신다.⁶²⁾ 다른 경우에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요15:12). 다른 곳에서 예수님은 십계명 중 나머지 여섯 계명(대인 계명)의 전체 내용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22:39)임을 명백히 말씀하셨다. 따라서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요13:14)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모범(example)이 되어 주신다.⁶³⁾

바울 서신에서도 율법(도덕법)의 연속성에 대해서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구원의 방법으로서의 율법은 폐기되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이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놓여 있고(롬6:14),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이미 죽었다(롬7:1-4).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살기 위해서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이다(갈2:19).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인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십계명의 요구가 폐기된 것은 아니라 여전히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

신자가 율법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한다는 말은 율법의 정죄와 저주에서

62) Comm. on Matt 5:19.

63) Comm. on John 13:34. cf. Hoekema, 『개혁주의 구원론』, p. 374. 호크마는 이 부분을 “시각적 도움”(visual aid)이 되는 그리스도의 모범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해방된 것을 의미하지 율법의 요구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율법의 요구는 여전히 그 요구는 육체를 좇지 않고 성령을 좇아(롬 8:4)사는 우리 안에서 성취되어진다. 중요한 것은 율법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 우리 즉,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우리가 완전히 변했다는 것이다. 율법은 본래 거룩하고 신령한 것이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이다(롬7:12,14). 이런 율법과 계명이 무서운 것이 되고만 것은 악한 인간의 마음이 율법과 계명에 대하여 불순종하고 대항하였기 때문이다.⁶⁴⁾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은 율법에 대하여 새로워진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율법의 본래의 목적과 기능이 그 빛을 제대로 발하게 된 것이다. 율법을 자세히 살펴보는 자는 야고보처럼 율법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율법에 대한 이런 진리를 깨달은 자는 그 율법을 순종하게 되고 이런 자는 약속한 복을 받게 된다.⁶⁵⁾

사실, 바울 서신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예를 들어 롬12장부터 그것을 강조한다. 롬13장에서는 신자들이 사랑의 실천으로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우리에게 사랑의 임무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우리는 마땅히 모든 면에서 여기에 도달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율법 전체의 목적은 우리에게 서로간의 사랑을 일구고 가꿀 것을 명령하고 있다.⁶⁶⁾ 그러므로 신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이다.

칼빈은 그의 교리문답 초판(Catechism, 1537) 17절(section)에서 율법을 성화와 관련시켜서 다루었는데, 그 제목을 이렇게 붙였다 : “우리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어 율법을 순종하게 된다”(We are sanctified through faith in order to obey the law). 여기서 칼빈은 율법의 제 3용법을 다루고 있는데

64) Inst., II, vii, 7.

65) Comm. on James 1:25.

66) Comm. on Rom 13:9.

67) 칼빈은 신자들에게도 율법은 삶의 규범으로 계속 유효⁶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이 중생한 신자에게 있어서 율법은 구원의 길로서가 아니라, 영으로 사는 백성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를 가르치고 그대로 지켜지기를 요구한다. 즉 율법이 언약 백성들의 생활 규범으로 역사(役事)한다. 특히 도덕법(윤리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도 일점 일획의 가감도 없이 더 강한 요구로 그대로 지키되 더 엄격히 지켜지기를 요구한다. 이상과 같이, 신약 시대의 신자들에게도 율법(도덕법)을 지킬 의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율법의 연속성에 대한 칼빈의 이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수님이 오심으로 율법이 폐기된 것은 아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다. 예수님은 잘못된 율법 해석을 고쳐 주시고 율법의 참 뜻을 회복하시고 율법을 이루신 분이시다. 둘째, 율법의 정죄 기능이 불신자들에게는 여전히 남아 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 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율법의 저주와 정죄 기능이 제한적이지만, 아직도 예수밖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의 정죄와 저주 아래 놓여 있는 것이다. 셋째, 율법이 신자에게는 생활의 규범으로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율법이 신자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구원의 길이 아니라 삶의 규범으로서 그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 율법의 준수를 통하여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나가시는 것이다.

67) I. John Hesselink, *Calvin's concept of the Law*, p.13.

68)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 제 97문에서도 율법(도덕법=십계명)이 중생한 자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는지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 “중생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행위의 계약인 도덕법에서 해방되었으므로 이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거나 정죄를 받는 일이 없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도덕법의 일반적 용도 외에 특수한 소용이 되는 것은 이 법을 친히 완성하시고 그들을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신 그리스도와 그들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 줌으로써 그로 하여금 더욱 더 감사하게 하며 이 감사를 표시하려고 그들의 생활 법칙으로서 도덕법을 더욱 더 조심하여 따르게 한다”고 했다.

4장 율법주의의 극복

칼빈에 대한 통속적인 이미지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결정적인 이중 예정교리를 가르치는 차갑고 논리적인 이론가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게다가 세르베투스(Servetus ; 1511-1553)를 화형시킨 완고하고 냉혹한 제네바의 개혁자로 특징된다. 이런 가혹한 풍자(Caricature)는 가끔 칼빈에 의해서 성경이 문자적으로 해석되는 “율법책”(lawbook)이 되었다는 말로서 결론을 맺는다. 그러므로 칼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잘 모르는 율법 교사로 배척받는다. 이런 이미지의 대부분은 꾸민 이야기, 거짓, 그리고 편견에 의한 것인데 지난 반세기 동안 칼빈 연구에 의해서 철저히 잘못을 밝혔다.⁶⁹⁾ 그 결과 칼빈과 그의 작품에 대한 과거의 초상화는 더 이상 책임있는 역사가들에 의해서 심각하게 취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율법주의에 대한 비난은 칼빈을 반대하는 수준으로 계속되고 있다.⁷⁰⁾ 이러한 점에서 카톨릭교도, 유대인, 그리고 자유주의자들 뿐만 아니라 정통 루터파조차도 칼빈을 반대한다.

칼빈이 율법주의자로 보여지는 것은 그가 기독교 계시의 배타적인 주장,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강조한 것을 오해한 것이며, 또 한편으로는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적으로 그의 사상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이다.⁷¹⁾ 그러나 니젤(Wilhelm Niesel)은 칼빈의 글을 읽으면 읽을수록 칼빈이 율법주의자라는 편견이 깨뜨려 진다고 생각했다. “만일 우리가 칼빈의 율법주의에 관한 일반적인 편견을 가진 채 실제로 그의 저서를 접하게 된다면 그 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는지 새삼 깨닫게 될

69) Ernst Pfister, *Calvins Wirken in Genf* (Neukirchen Kreis Mores : Nerkirken ville Verlag, 1957) ; Richard Stauffer, *The Humanness of John Calvin* (Nashville : Abingdon, 1971). 이 책들은 특별히 칼빈의 인격과 제네바에서의 활동을 잘 소개해 준다.

70) I John Hesselink, *Calvin's Concept of the Law*, p. 1.

71) 전경연, 『칼빈의 생애와 신학 사상』, p. 125.

것이다.”⁷²⁾

칼빈은 율법의 연속성을 강조하면서도 율법주의를 극복한 신학자이다. 필자는 여기서 칼빈이 율법주의를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 보고자 한다.

1)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

먼저, 칼빈은 그리스도를 “율법의 완성”이라고 봄으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단절로 보지 않고 유기체적인 관계로 보았던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칼빈은 그리스도가 율법을 성취하시고 약속들을 해결하신다고 보았다. 율법에는 복과 저주, 그리고 생명과 사망이 우리 앞에 제시되어 있다(신11:26; 30:19). 주께서는 우리가 생명과 복을 선택하기 위하여 율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신다.⁷³⁾ 율법을 지키되 완전히 준수하지 않으면 행위에 의한 의(義)를 전연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께서는 자주 확인하신다.⁷⁴⁾ 이와 같이 율법의 요구는 율법을 지켜야 산다는 것이다(레18:5). 반대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죽는 것이다. 이들에게는 저주가 있을 뿐이다(신27:26 ;갈3:10).⁷⁵⁾

그러나 사실은, 거듭나지 못한 육의 사람은 그 누구도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는 없다. 육의 사람은 사망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롬7:24 참조), 한 사람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막12:30) 하나님을 사랑할 만큼 사랑의 목표에 도달한 일이 없었다고 칼빈은 말한다.⁷⁶⁾ 실제로, 율법의 요구대로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사람은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율법을 통해서 전 인류는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아래 놓여 있다.⁷⁷⁾

이와 같이 절망 상태에서는 중보자의 출현 이외에는 다른 대책이 없다.⁷⁸⁾

72) Wilhelm Niesel, 『칼빈의 신학 사상』, p. 109.

73) Inst., III, xvii, 1.

74) Inst., III, xiv, 3.

75) Inst., III, xiv, 13.

76) Inst., II, vii, 5.

77) Inst., III, xvii, 1.

78) Inst., II, vi, 4.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 기인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의 저주와 진노 아래 있는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보내 주신 것이다.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을 완성하셨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는 ……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고 했는데 여기서 “마침”이란 말은 헬라어로 τέλος 인데 이 말은 “성취”(fulfillment), “목표”(goal)라는 의미를 가진다.⁷⁹⁾ 그러므로 “율법의 마침”이란 그리스도께서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이루심”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한글 개역 성경)이란 표현보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성취 혹은 완성”이라는 표현이 더 타당하다. 칼빈도 그의 주석에서 율법의 “마침”(τέλος)이라는 표현을 에라스무스가 번역한 대로 “완성”(completion or perfection)이라는 단어가 적절하다고 보았다.⁸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율법의 요구를 우리 대신 이루셨다. 즉 그리스도는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시려고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지킴으로 율법을 완성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의(義)를 이루셨다. 이 의(義)는 우리의 행위의 공로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값없이 주어지는 까닭에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다.⁸¹⁾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의(義)를 입게 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율법의 정죄와 저주와 진노 아래에서 구원받는다. 이 복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된 것이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의 정죄 기능이 폐지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율법에서 해방되었다고 할 수 있다.⁸²⁾

79) G. Kittel & G. Friedrich, ed.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Vol. VIII., 54. 참조하라. 신약 성경에서 τέλος의 일차적인 의미는 동사 τελέω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τελέω의 의미는 성취하다(fulfilled), 수행하다(carried out)이다.

80) Comm. on Rom10:4.

81) Comm. on Rom10:4.

82) Inst., II, vii, 15.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이 필요없는 것인가? 율법과 복음의 단절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율법이 신자들에게 불필요하다고 추론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다. 오히려 믿음은 율법을 폐하지 않고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롬3:31). 주님께서서는 그가 율법 안에 의와 구원의 길을 규정해 놓으셨다는 것을 율법으로 확증하신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없이는 율법은 성취되지 않는다.⁸³⁾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롬3:31).

예수님께서도 직접 자신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고 하시며,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마5:17-18)고 선언하심으로써, 주의 오심으로 인해서 율법 준수가 조금이라도 경감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시의 “율법폐기사상”을 단호하게 거부하셨다.⁸⁴⁾ 사실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도리어 율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바로 잡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극성을 부리는 반율법주의와 극단적인 복음주의는 성경적인 가르침을 따라 바르게 교정되어야 한다.

신자에게 율법의 정죄 기능이 폐지되었다고 해서 율법의 요구 자체는 폐지된 것이 아니다. 율법의 요구는 여전히 살아 있다. 그러므로 신자에게도 율법은 완전한 순종을 요구한다. 이 요구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신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율법의 정당한 이해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한다.

율법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다른 용도로 유효하다는 것을 성경

83) Comm. on Rom3:31.

84) Inst., II, vii, 14.

은 가르치고 있다. 칼빈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율법의 용도는 더 이상 구원의 길이 아니라, 성화의 길을 가는 성도들에게 거룩한 삶과 선행의 동기를 부여하며 생활의 규범으로서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했다.⁸⁵⁾ 율법은 신자들이 모든 선행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단련하며 준비시킨다(딤후3:16-17참조)⁸⁶⁾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화의 생활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으므로 우리의 모든 생활에는 거룩한 삶을 위한 경건의 실천이 있어야 한다(살전4:7, 엡1:4, 살전4:3참조). 이 때에 신자들에게 의무를 알려주며 거룩과 성결에 대한 열의를 일으키는 것이 율법이 하는 역할이다.⁸⁷⁾

하나님 의지의 표현으로서의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며 그리스도께 우리를 인도한 몽학선생의 역할을 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율법은 그 용법이 달라졌다. 우리의 삶의 규범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믿음은 순종과 사랑을 동반한다. 우리가 율법을 순종하고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이미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우리는 이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의를 전가(轉嫁)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자신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율법의 요구를 감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전제될 때에, 율법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것은 율법주의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 하며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게 만든다.

85) Inst., II, vii, 13.

86) Inst., II, vii, 14.

87) Inst., III, xix, 2.

2)성령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

칼빈이 율법의 연속성을 강조하면서도 율법주의를 극복하는 또 다른 측면은 성령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화의 생활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⁸⁸⁾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 가운데서 받아들이신 사람에게 동시에 양자의 영을 주셔서(롬 8:15), 이 영의 힘으로 자신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개조하신다.⁸⁹⁾ 특별히 성령은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파견되신 분이신 데⁹⁰⁾,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게 하신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의 삶은 성령의 사역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우리의 구원 문제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하신 사역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는 점에서 철저히 우리의 역할은 배타적이며 수동적이다. 구원 문제를 기독교론적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역할은 아무 것도 없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았다는 말이 옳다. 그러나 성령론적으로 구원 문제⁹¹⁾를 접근하면 우리의 역할은 능동적이고 필수적이다.

바울은 빌2:12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한다고 권면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구원은 이미 빌2:5-11사이에 이미 요약되어 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데,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하시는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의 구원 문제에 있어서 전적인 은혜 이외에 우리가 해야 할 어떤 몫이 있단 말인가? 칼빈은 그의 주석에서 이 구절을 “우리가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복된 삶을 열심히 추구할 때, 구원을 완성하게 된다”고 했다.⁹²⁾ 그러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

88) Ibid.

89) Inst., III, xi, 6.

90) Inst., III, iii, 14.

91) Inst., III, i, 1. 칼빈은 “성령을 우리와 그리스도를 연합시켜 주는 때”라고 보았다. 율법의 완성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칼빈은 구원의 문제를 “성령의 내적 사역”의 맥락에서 다루었다.

92) Comm. on Phil 2:12-13.

는 분은 하나님이지요, 우리편에서는 다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그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뿐이다.⁹³⁾ 이런 면에서 우리는 성령께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따라서 빌2:12-13은 성령론의 맥락으로 읽어야 한다.

요컨대, 구원은 우리가 이루어야 할 “우리의 일”이지만, 우리의 구원은 이에 앞서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인 구원을 이루심으로 하나님 당신의 일을 하신다. 칼빈은 성령론적 인간론을 견지하면서 그 절정은 하나님과 우리가 “동역자”(συνεργός 고전3:9; 고후6:1; 살전3:2; 막16:20)로 사역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바울은 자신의 복음 사역이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 수행된다고 했다(고후3:6; 고전2:4). 바울은 여러 구절에서 자기를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할 뿐 아니라 자기는 구원을 나누어주는 일을 하노라고 말했다(고전3:9이하).⁹⁴⁾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역자로 쓰임 받는 것은 가장 큰 영광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이 성령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삶을 살게 된다. 칼빈은 중생의 목적을 이렇게 생각했다.

“중생의 목적은 신자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와 일치되고 조화를 이루는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된 삶을 영위함으로 이미 받은 자녀의 자격을 더욱 확고하게 한다.”⁹⁵⁾

이와 같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은혜로 받은 것이지만(엡2:8), 구원받은 성도들은 율법의 요구⁹⁶⁾를 따라 사랑의 계명(마22:36-40; 막12:29-31; 요13:34)과 선행에 힘써야 할 것을 성경은 교훈한다. (엡2:10; 딤후1:16; 딤후2:14 참조).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한다(약2:17). 믿음만이 의롭게 하지만, 이로 인하여 의로워진 믿음은 사랑의 실천과 선한 행

93) Ibid.

94) Inst., IV, i, 6.

95) Inst., III, vi, 1.

96)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율법의 요구는 여전히 있다.

위를 수반한다(갈5:5; 고전13:2; 약2:26). 따라서 종교 개혁자들의 구호인 “오직 은혜로 만으로”가 행위를 무시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성도의 행위를 부각시키는 것은 결코 중세적인 공로주의로의 복귀가 아니라 성경적인 합당한 교훈이다.

그러나 우리가 선행을 할 수 있으려면 자유의지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은총(참으로, 태함을 입은 사람들만이 중생을 통하여 받은 특별 은총)의 도움을 받아야 만 한다.⁹⁷⁾ 이 도움은 다름 아닌 성령의 도우심을 의미한다. 우리의 의지 속에 어떤 선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성령의 순수한 감동에서 생긴다. 이는 우리의 성화를 위하여 우리에게 파견되신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의과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하게 하신다.⁹⁸⁾ 우리 육신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하지만(롬8:7), 성령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신다(롬8:4).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의 삶은 성령 안에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며 성령 안에서 선한 삶과 사랑의 실천이 가능하게 된다. 우리가 선한 삶을 살게 된 것은 전적인 성령의 주도권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는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한 이는 성령 하나님(빌1:6)이시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구원받은 자의 행위는 성령론적인 맥락에서 다루어야만 한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성령의 역사 100%, 성도의 순종과 헌신 100%가 필요한 것이다.

이상과 같이, 칼빈은 신자의 삶 속에서 율법을 따라 살 것을 강조하면서도 성령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율법주의를 극복했다고 할 수 있다.

97) Inst., II, ii, 6.

98) Inst., III, iii, 14.

5장 율법과 윤리적인 삶

지금까지 우리는 율법의 불연속성과 연속성에 대한 칼빈의 이해를 살펴보았다. 여기서 우리는 칼빈이 그 누구보다도 율법의 불연속성과 연속성을 명쾌하게 이해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도 그는 율법의 연속성을 강조하지만, 결코 율법주의자가 아니라는 사실도 확인하게 된다. 우리는 칼빈의 율법 이해가 대단히 성경적이며 탁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칼빈의 율법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 한국 교회와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율법관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본 장에서는 율법 이해와 성도의 윤리적인 삶의 관계를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셨는지 칼빈의 율법 이해를 통해서 접근해 보고자 한다.

1) 율법 이해와 윤리적인 삶과의 관계

오늘 우리 사회가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거의 모든 면에서 전통적인 도덕과 가치관에 대한 회의가 제기되거나 아니면 옛 도덕이나 가치관이 폐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서, 오늘 우리는 도덕의 붕괴를 목격하고 있다.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우리 앞에 나타날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고민이 아닐 수 없다. 오늘날 도덕에 관해 일치된 의견은 찾기 힘들지만 윤리에 대한 관심은 계속 증대되고 있다.⁹⁹⁾ 가치관이나 도덕이 부재한 이 시대에 성도는 어떻게 바른 삶을 추구할 수 있을까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이런 변화의 시대에 신자들과 교회의 도덕적 수준도 많이 떨어진 것도 사실이다. 그 이유는 율법에 대한 오해에서 기인된 것이 아닌가 싶다.

99) J. Douma, *Christian Morals and Ethics*, 『개혁주의 윤리학』, 신원하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4), p. 12. Douma 교수는 도덕과 윤리를 이렇게 구분한다. 도덕(道德)은 전통적이며, 사회적으로 폭넓게 수용된 관습이지만 윤리(倫理)는 이 관습에 대한 반성이다.

이런 현상은 신자에게는 율법은 더 이상 필요없다고 주장하는 극단적인 복음주의의 영향임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의 역할을 하고 퇴장해 버리고, 더 이상 그 역할이 필요없다고 가르치고 있다. 이는 루터파나 세대주의 율법관의 영향이라고 이미 지적한 바 있다. 오늘 한국 교회의 강단에서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단절로 보는 시각들이 너무 큰 것이 사실이다. 율법을 강조하면 무조건 율법주의로 매도당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¹⁰⁰⁾ 교회의 강단에서 복음을 강조해야지 율법을 강조하면 안 된다는 주문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율법없는 복음은 성립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복음없는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역할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런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아니다. 이와 같이 한국 교회에는 율법의 연속성을 강조하거나 성도의 행위를 강조하면, 일단은 율법주의자가 아닌가 오해를 받는 실정이다. 이런 경향은 율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은 기독교 윤리를 위한 규범을 성경에서 찾아야 한다.¹⁰¹⁾ 이와

100) 박길현은 『한국 신학의 율법주의적 경향을 우려하면서』라는 글에서 지금 한국 교회의 율법관이 행위를 강조하는 율법주의적 경향을 띠고 있다고 우려했다. 현금(現今) 한국 보수 신학교의 몇몇 교수들이 이런 경향을 띠고 있다고 피력했다. 정훈택 교수(『열매로 알리라』, 서울:총신대학출판부,1993)는 율법을 행위의 규범으로 보고 있으며 그에게 있어서 율법의 행함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주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정교수는 행위를 너무 강조하기에 율법주의적 경향을 띠고 있다고 보았다. 홍인규 교수(『바울이 율법과 복음』, 서울:생명의 말씀사, 1996), 최갑중 교수(『바울연구 I』, 서울:기독교문서선교회, 1992; 『성령과 율법』, 서울:기독교문서선교회,1994)와 같은 분들이 율법의 연속성과 행위를 강조하는데 이들은 언약적 신율주의를 표방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들에 의하면 율법은 언약의 전제조건이 아니라 결과라는 것이다. 즉 율법은 언약 백성의 신분을 확립하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구속 사건을 통하여 이미 확립된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견해이다. 박길현은 이들이 율법의 연속성과 행위를 강조하기 때문에 율법주의적 경향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이 율법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신앙생활에서 삶(행위)을 강조하면 율법주의로 오해받기도 한다. 박길현, 이상봉, 이근호 공저, 『믿음으로나 행위로냐』, (서울:대장간, 1997), pp.9-19를 보라.

같이 기독교 윤리의 출발점은 성경인데 그 중에서도 율법은 윤리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¹⁰²⁾ 율법에 대한 오해로 인하여 성도의 삶의 규범이 되는 율법을 필요없는 것으로 여긴 것은 잘못이다. 극단적인 복음주의는 믿음으로만 구원받기 때문에 행위는 필요없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위한 율법의 제 3용법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믿는 자의 삶을 강조한다고 율법주의자로 오해받는 것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런 오해들은 신자들에게 율법의 정죄 기능이 폐기되었기 때문에 율법의 역할이 이미 끝난 것으로 보기 때문인 것 같다. 이는 율법의 기능을 단지 우리의 죄를 드러내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칼빈은 신자들에게서 율법 자체를 제거하는 일이 없이 다만 율법의 정죄 기능만 제거할 뿐이다. 즉, 신자들에게 율법의 정죄 기능은 없어졌지만, 완전한 순종을 명하는 율법의 요구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이 신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들을 통해서, 선을 행하도록 하는 교훈과 자극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은 오늘도 신자들의 삶의 규범으로 여전히 유효하므로 하나님의 율법을 삶의 규범과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

과거에나 오늘날에도 왜 이런 율법에 대한 오해들이 생기는 것일까? 이는 율법의 용법을 한 가지로만 생각하거나, 또는 한 가지 용법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101) J. Douma, *Christian Morals and Ethics*, 『개혁주의 윤리학』, p.49.

102) 기독교 윤리학에 있어서, 성경 사용에 관한 탁월한 시야를 제공한 신학자는 클라스 스킬더(Klaas Schilder, 1890-1952)이다. 그는 윤리학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윤리학이란 불변하는 토대와 변화하는 시대와 하나님의 뜻에 관련된 한 적합하고 구체적이고 한정된 인간의 의무에 관한 지식이다.” 이와 같이, 기독교 윤리의 과제는 적용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불변하는 토대(Constant grounds)인 성경 말씀을 변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문제와 어떻게 적합하고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J. Douma의 책 『개혁주의 윤리학』 PP.54-60을 참조하라.

2) 율법의 용법과 삶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명을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시는가를 생각해 보자. 즉, 율법의 용법¹⁰³⁾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칼빈은 율법이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라는 도덕적 차원에서 3가지 용법¹⁰⁴⁾을 가진다고 보았다. 칼빈은 율법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본다.

1) 제 1용법: 인도적 책망적 용법¹⁰⁵⁾(*usus paedagogicus, elenchticus*)

칼빈은 율법의 제 1용법을 죄를 비취 주는 거울의 용도로 이해했다. 이 용법은 율법이 죄를 인식하게 하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의 역할을 한다. 율법은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 주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도록 한다. 즉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며, 동시에 인간 자신의 불의함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인정하게 하고, 결국에는 정죄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기심에 눈이 어둡고 정신이 마비되어 있으므로, 자신의 무력함과 불결함을 알고 자백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¹⁰⁶⁾ 그래서 “자기의 생활을 한번 율법이라는 거울에 놓고 돌아본 후에는 지금의 모든 허구적인 자의를 버리게 된다.”¹⁰⁷⁾

이와 같이 율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여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가정교사 역할을 한다. “(갈3:24)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와 같이 율법이 선포될 때에 사람들이 죄인 됨

103) 칼빈은 이에 대해서 Inst., II, vii 에서 다루나, 제 3용법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인 삶”을 다루는 Inst., III, vi, vii 에서 다시 취급하고 있다.

104) 율법은 용법은 3가지가 있다. 그런데 제 1용법과 제 2용법의 순서가 서로 바뀌어서 취급되기도 한다.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제 1용법으로 정치적 용법을 다루고, 제 2용법으로 교육적 용법을 다룬다. 그러나 칼빈은 제 1용법에서 교육적 용법을 다루고, 제 2용법에서 정치적 용법을 다룬다. 율법의 용법에 관한 글을 취급할 때에 이것을 구분하지 아니하면 혼돈하게 된다.

105) Inst., II, vii, 5ff.

106) Inst., II, vii, 6.

107) Ibid.

을 깨닫게 되고 구원자를 열망하게 되는 것이다. 청교도적 설교란 바로 이런 설교였다. 율법의 선포 그것이 바로 그들의 설교의 초반부요, 복음의 선포가 그들의 설교의 결론이었다.¹⁰⁸⁾ 우리 한국 교회도 이 율법을 잘 가르쳐서 우리 민족 전체가 주님께로 나아 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제 2용법: 정치적, 사회적 용법(*usus civilis, politicus*)

이것은 율법이 사회적 정치적 기강과 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이다. 칼빈은 이 용도를 세상의 악을 억제하기 위한 기능으로 본다.

율법의 둘째 기능은 적어도 벌을 받으리라는 공포심을 일으켜 사람들을 억제하는 것이다. 그들이 율법에 있는 무서운 위협을 듣고 강압을 느끼지 않으면, 바로고 공정한 일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자들을 억제하는 것이다.¹⁰⁹⁾

이러한 율법의 제 2용법은 사회 공익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 억제된 혹은 강요된 의는 인간 사회를 위해서 필요하다. 주께서는 만사가 소란하거나 혼란하지 않고 사회가 평온하도록 이런 방법을 마련하셨다.¹¹⁰⁾

이 용법은 주로 불신자들에 대한 율법의 용도로서 그들의 죄를 억제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딤후1:8-10). 성경이 전 국민의 교과서가 될 때 불신자들까지도 도덕 수준이 높아진 것은 영국의 역사에서도 분명하다.¹¹¹⁾ 그들은 해적의 후손들이었으나, 성경을 배움으로 신사의 나라가 된 것이다. 구미의 기독교 국가들이 하나님의 말씀(율법)을 버릴 때 짐승의 수준 이하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바이다. 우리 한국도 빨리 기독교의 참된 복음이 전파되고, 그 거룩한 율법이 선포되고 복음의 은혜가 수용될 때에 우리 민족의 도덕 회복의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다.

3) 제 3용법: 교훈적, 생활 규범적 용법(*usus didacticus, normativus*)

108) 정원태, 『율법과 복음』, p.29.

109) Inst., II, vii, 10.

110) Ibid.

111) 정원태, 『복음과 율법』, p.28.

이 용법은 감사의 규범 또는 복음에 대한 반응으로서 신자의 생활의 표준¹¹²⁾ 으로서의 용도를 말한다. 칼빈은 율법의 용법 중, 제 3용법이 율법의 본래 목적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이해한다.¹¹³⁾ 이 용법에서 율법은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 표준을 제시한다. 이 용법은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용법이다. 율법은 그들을 교훈하고 지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들의 삶에 실행될 때 하나님의 형상이 그 사람 속에서 이루어진다. 즉, 율법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게 하는 성화 생활의 준칙이 된다.¹¹⁴⁾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은혜에 감격하여 거룩하신 아버지의 뜻을 찾아가서 지키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된다(롬8:29).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예정하신 목적도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하심이다. 이를 위하여 죄인들로 하여금 율법을 통하여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성령을 친히 보내시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인 율법을 지키게 하신다. 그리하여 복음과 은혜의 열매가 율법을 지킴으로 결실되어진다.

칼빈은 루터와는 달리 율법 자체가 본질상 은혜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율법의 의도는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죽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는데 있는 것이다. 율법의 정죄 기능은 우리 인생들이 범죄하고 타락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나타난 기능이지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는 아니다. 율법의 정죄 기능은 우리의 악함 때문에 필요했던 기능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능은 아니다. 이 기능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바른 길을 가게 하시려고 회초리를 드신 것이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칼빈이 율법의 제 3용법을 율법의 본래 목적과 부합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바로 이런 맥락에서이다. 그런데 칼빈이 이 용법을 강조하다 보니 율법주의자라

112) Inst., III, viiff에서 율법의 주된 용도로 특히 강조한다.

113) Inst., vii, 12.

114) Inst., III, vi, 1.; Comm. on Psalm 119:9-11.

는 오해를 받기도 하는데 율법의 세 가지 용법은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방편이심을 생각할 때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율법의 세 가지 용법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은 율법의 세 가지 용법을 통해서 신자와 불신자에게 다른 용법으로 사용하시며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과 이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율법의 용법들을 통해서 죄인이 구원에 이르러 성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율법을 계속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런데 우리는 구약 시대를 통해서 볼 때, 신자들은 아직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단계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은 오실 메시아를 사모하고 기다리는데 적합하게 사용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당연히 율법의 첫 번째 용법으로 사용하신 것이다. 반면에 신약 성도들은 이미 오신 메시아를 믿는 신자들이므로 주님의 은혜를 이미 알고 있는 자들이다. 이들에게는 더 이상 율법의 첫째 용법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다. 신약 시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거룩한 삶을 요청하신다. 그러므로 신자에게 있어서 율법은 성화 생활의 규범으로 사용하시는 것이다.

결론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율법은 구원의 도리와 성도의 윤리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이다.

오늘 한국 교회 안에서도 율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두 가지 경향이 나타난다. 한 부류는 율법 무용론을 주장한다. 구약 시대는 율법 시대이고 신약 시대는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신자들은 구약 율법을 신약에서 그대로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신앙 생활에서 행위를 강조하면 율법주의자라고 인식한다. 이들의 오류는 복음의 의미를 강조하면서도 구원받은 자의 삶을 무시해 버린다. 그 결과 성도들의 도덕성이 결여되기도 한다. 한편 율법주의적인 색채가 강한 사람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약의 율법을 액면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한다. 이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 결과 이들은 복음의 의미를 약화시켜 버린다. 그런데 이런 입장들은 율법의 의도를 잘못 이해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와 같이 “율법”은 대단히 어려운 주제이지만 올바른 이해가 없이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정립할 수가 없다. 많은 신학자들 중에 칼빈은 율법이라는 어려운 주제를 아주 잘 이해한 학자이다. 그는 “율법의 해설자”라고 불리기도 한다. 그는 율법의 연속성을 강조하면서도 율법주의를 극복하는 뛰어난 신학자이다. 특별히 “율법의 불연속성과 연속성”에 관한 칼빈의 이해는 율법에 대한 많은 오해들을 불식(拂拭)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의지를 담고 있는 율법이 왜 불연속성과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 때문이다. 율법은 그리스도를 가리키

고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과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그 용법이 각기 다르다. 뿐만 아니라 율법은 그 대상에 따라 용법이 달라진다. 그래서 율법은 신자와 불신자에게 그 용법이 다르게 나타난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의지를 담고 있는데, 이 율법은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한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면서, 완전히 순종하면 생명과 복을 약속하신다. 반대로 불순종하면 사망(死亡)과 화(禍)를 주신다고 하신다.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율법의 정죄(定罪)와 저주(詛呪) 아래 놓여 있다. 이런 인생들에게 율법은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여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살길은 오직 예수를 믿는 길임을 가르쳐 준다. 이것이 율법의 제 1용법이다. 이 용법은 아직도 그리스도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남아 있는 기능이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않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율법의 정죄 기능이 제한적이다. 그렇다고 은혜 안에 있는 자들에게 정죄의 기능이 없어졌다고 율법의 영원한 요구마저 없어진 것은 아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율법의 요구는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런데 실제로 육체를 가진 사람 중에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걱정 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에게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이다. 구원받은 신자들은 이제 성령 안에서 성화의 길을 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진다.

그러면 성화란 무엇인가? 성화란 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성경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율법을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순종하는 마음도 성령이 주시는 것이다.¹¹⁵⁾ 이와 같이 성화의 과정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간의 협력으로(빌2:12,13) 역사하신다. 성화 과정에서 인간의 행위는 하나님께 경배를 돌리며 적극적으로 순종해 보려고 애쓰는 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정당한 행위이다.¹¹⁶⁾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율법과 복음의 사람이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율법을 등한시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영혼은 하나님의 율법을 속사람으로부터 즐거워하며(롬7:22) 그의 중심에 굳게 붙잡는다. 이는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율법에 순종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아직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은 이런 즐거움을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이다.¹¹⁷⁾ 이와 같이 참된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하여 기도한다. 그리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의 요구가 신자의 심령 속에 이루어진다. 중생한 자는 성령을 좇아 행하는 자임으로 기도하여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된다(롬8:2-4). 이것이 성화의 단계에 있는 성도의 삶인 것이다.

이상과 같이 성화의 과정에 있는 신자에게 율법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다. 우리의 육체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지만 성령 안에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다. 우리 스스로는 성화를 이룰 수가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전한 요구를 이루시고 먼저 성화의 본이 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제 없이는 성화의 삶을 이룰 수가 없다.¹¹⁸⁾ 그러기 때문에 더욱 더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된다. 이와 같이 성도의 삶에 있어서 복음과 율법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길이요 방편임을 알 수 있다. 성화 과정을 통해서 성령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신다. 이런 성화의 과정 속에서 율법은 우리의 삶의 규범과 표준으로서 그 역할을 하게 된다. 이것이 율법의 제 3용법이다.

115) Comm. on Rom 7:22.

116) Comm. on Rom 3:20.

117) Ibid.

118) Inst., III, xiv, 4ff.

칼빈은 율법을 삶의 규범으로 지키는 신자들에게 율법을 지키는 즐거움을 배우라고 가르친다.¹¹⁹⁾ 뿐만 아니라, 칼빈은 율법이 모든 시대에 의의 표준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율법에는 의의 완전한 모범이 나타나 있으므로 그 율법을 떠나서는 안된다. 우리의 생활을 지도하는 영원불변의 표준은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의 생활은 율법에 대한 끊임없는 묵상이라고 한 다윗의 발언은(시1:2) 한 시대 뿐 아니라 모든 시대에 세상 끝까지 적용된다.¹²⁰⁾

율법에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의지가 표현되어 있다. 이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완전한 순종은 우리가 도달하려고 일평생 애써야 하는 목표이다.¹²¹⁾ 모세의 교훈에 의하면, 율법은 죄인들 사이에서는 죽음만 만들어 내지만 성도들 사이에는 더 좋고 훌륭한 이용법이 있다고 한다. 그는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은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신32:46,47)라고 했다.¹²²⁾

우리는 율법의 가장 훌륭한 해석자이신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¹²³⁾ 예수님께서 구약 율법에 대한 부당한 해석인 할라카(Halachah)를 폐하셨습니다, 율법 자체를 폐하신 것은 아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참된 해석을 해주심으로 율법을 재천명(再闡明)하신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칼빈은 예수님이 새로운 율법을 가져다주신 분으로 보기보다는 율법을 충실히 해석하고 명확하게 규명하신 분으로 보았다.¹²⁴⁾ 예수님은 율법의 영원성(연속성)을 강조하셨다(마5:17-20).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폐지하려고 하지 않으셨을 뿐 아니라 그것은 결코 폐지될 수 없다고 강조한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새계명인 “사랑의 새계명”(요13:34)을 주신 후에, “너희가

119) Inst., II, viii, 15.

120) Inst., II, vii, 13.

121) Ibid.

122) Ibid.

123) Inst., VIII, viii, 7.

124) Comm. on Matt 5:17f.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요14:15)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말씀이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오늘날의 신자들에게도 역시 율법과 계명을 지킬 것을 명령하고 계신다. 오늘날 신약 시대에도 율법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여전히 표준으로 남아 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율법과 복음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복음 안에서는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의(義)를 입게 된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율법을 삶의 규범으로 삼고 율법을 순종하게 된다. 성도의 율법 준수는 더 이상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편이며 은혜를 받는 방편이기도 하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공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다. 율법에 대한 참된 순종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가고 계신다.

Soli Deo Gloria !!

Bibliography

1. 칼빈의 저서

-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 John T. McNeill, translator Ford Lewis Battle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 Calvin, John, *Commentaries on The four last of Moses in the form of a harmony, Vol.1* translator. C. W. Bingham (Grand Rapids: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852)
- Calvin, John, *Commentary on the Book of Psalms*, translator. James Anderson (Grand Rapids: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 Calvin, John, *Calvin's Commentaries : The Epistles of Paul the Apostle to the Romans and to the Thessalonians*, translator Ross Mackenzie, ed D. W. Torrance & Thomas F. Torrance (Grand Rapids: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60)
- Calvin, John, *Calvin's Commentaries : A Harmony of the Gospels Matthew, Mark and Luke. Vol 1.* translator Ross Mackenzie, ed D. W. Torrance & Thomas F. Torrance (Grand Rapids: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2)
- Calvin, John, *Calvin's Commentaries : A Harmony of the Gospels Matthew, Mark and Luke. Vol 2.* translator Ross Mackenzie, ed D. W. Torrance & Thomas F. Torrance (Grand Rapids: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2)
- Calvin, John, *Calvin's Commentaries : The Gospel according to ST John 11-21 and The First Epistle of John*, translator T. H. L. Parker, ed D. W. Torrance & Thomas F. Torrance (Grand Rapids: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61)
- Calvin, John, *Calvin's Commentaries : The Epistles of Paul the Apostle to the Galatians, Ephesians, Philippians and Colossians*, translator T. H. L. Parker, ed D. W. Torrance & Thomas F. Torrance (Grand Rapids: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65)
- Calvin, John, *Calvin's Commentaries : The Epistles of James*, translator T. H. L. Parker, ed D. W. Torrance & Thomas F. Torrance

(Grand Rapids: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2)
Calvin, John, 『기독교 강요』 上, 中, 下, 김종흠.신복윤.이종성.한철하 공역
(서울:생명의 말씀사, 1995)

2.2차 참고 자료.

<영서>

- Arthur Buttrick, G., *The 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 Vol. 2, (Nashville : Abingdon Press,1982)
- Bahnsen, G. L., *Theonomy in Christian Ethics* (Nutley:The Craig Press, 1977)
- Bahnsen, G. L 외 4명, *The Law, the Gospel and the modern Christian* (Grand Rapids:Zondervan Publishing House, 1993)
- Barker William S.& Godfrey W. Robert Editors, *Theonomy:A Reformed Critique* (Grand Rapids:Zondervan Publishing House, 1990)
- Buttrick, G. Arthur, *The 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 Vol. 2, (Nashville : Abingdon Press,1982)
- Ebeling, G., *Luther : An Introduction to his Thought* (Philadelphia : Fortress Press, 1970)
- Fuller, D. P., *Gospel and Law : Contrast or Continuum?* (Grand Rapids: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0)
- Herring B. F., *Jewish Ethics and Halakhah for Our Time* (New York:Yeshiva University Press, 1989)
- Hesselink, I. John, *Calvin's Concept of the Law* (Pennsylvania:Pickwick Publications, 1992)
- Kittel, G. & Friedrich, G., ed.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Vol.VIII. (Grand Rapids: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2)
- Pfister, Emst, *Calvins Wirken in Genf* (Neukirchen Kreis Mores : Nerkiriken ville Verlag, 1957)
- Rushdoony R. J., *The Institutes of Biblical Law* (Nutley:The Craig Press, 1973)
- Stauffer, Richard, *The Humanness of John Calvin* (Nashville : Abingdon, 1971).

<번역서>

- Berkhof, L., *The History of Christian Doctrine* 『기독교 교리사』, 신복윤역 (서울:성광문화사, 1987)
- Dauma, J., *Christian Morals and Ethics* 『개혁주의 윤리학』, 신원하역 (서울:기독교문서선교회, 1994)
- DeHaan, M. D., *Law or Grace* 『율법이나 은혜냐』, 이용화역 (서울:생명의 말씀사, 1971)
- Hoekema, A. A., *Saved by Grace* 『개혁주의 구원론』, 류호준역 (서울:기독교문서선교회, 1991)
- Hoekema, A. A., *Created in God's Image* 『개혁주의 인간론』, 류호준역 (서울:기독교문서선교회, 1991)
- Holtrop, Philip C. 『기독교 강요 연구 핸드북』, 박희석·이길상역 (서울: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5)
- Lose, Bernhard, *Epochen der Dogmen Geschite* 『기독교 교리사』, 구영철역 (서울:킨콜디아사, 1988)
- Niesel, Wilhelm, *The Theology of Calvin*, 『칼빈의 신학 사상』 (서울:기독교문화사, 1987)
- Packer, J. I. 편저, *The Law Modality and the Bible* 『율법과 윤리』, 박권섭역 (서울:백함출판사, 1985)
- Peterson, Robert A. 『칼빈의 구원의 도리』, 황영철역 (서울:반석문화사, 1994)
- Ridderbos, Herman, *Paul An Outline of His Theology* 『바울신학』, 박영희역 (서울:지혜문화사, 1987)
- Walther, C. F. Wilhelm, *Gesetz und Evangeium* 『율법과 복음』, 지원용역편 (서울:킨콜디아사, 1993)
- Willace, Ronald S., *Calvin's Doctrine of the Christian Life* 『칼빈의 기독교 생활 원리』, 나용화역 (서울:기독교문서선교회, 1988)

<합서>

- 고재수, 『개혁주의 입장에서 본 십계명 강해』 (서울:여수론, 1991)
- 김광욱, 『도표로 보는 한국 칼빈 자료 100년사』 (서울:성광문화사, 1994)
- 김의환편, 『개혁주의 신앙고백집』 (서울:생명의 말씀사, 1984)
- 박길현·이상봉·이근호 공저, 『믿음으로냐 행위로냐』 (서울:대장간, 1997)
- 서철원,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 (서울:엠마오, 1987)
- 이상규편, 『한국에서의 칼빈 연구 100년』 (서울:개혁주의신행협회, 1985)

- 이장식편, 『기독교 신조사』 제 1집 (서울:컨콜디아사, 1979)
- 유해무, 『개혁 교의학』 (서울:크리스찬 다이제스트,1997)
- 전경연, 『칼빈의 생애와 신학사상』 : 복음주의신학총서 제27권 (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92)
- 정원태, 『율법과 복음』 (서울:기독교 문서선교회, 1990)
- 정훈택, 『열매로 알리라』 (서울:총신대학출판부, 1993)
- 최갑중, 『바울 연구 I』 (서울:기독교문서선교회, 1992)
- 최갑중, 『성령과 율법』 (서울:기독교문서선교회, 1994)
-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편, 『한국신학관계 석박사학위 논문목록집』 (서울:나눔사,1993)
- 홍인규, 『바울의 율법과 복음』 (서울:생명의 말씀사, 1996)

<논문>

- 권애희, 『칼빈에 있어서의 성화와 율법의 위치』, 아시아연합신대원, 1992.
- 김정우, “구약 율법과 신약 윤리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신학지남』, 제58권 1집(91년, 봄호)
- 이보민, “구약 율법의 계속성 문제”, 『현대 윤리사상의 비판』 (서울:기독교 문서선교회, 1991)
- 이승희, 『복음과 율법에 대한 M. Luther와 J. Calvin의 이해 연구』, 고신대신대원,1988.
- 이한수,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율법과 약속”, 『신학지남』, 제60권4집(93년, 겨울호)
- 이형기, “율법과 복음 그리고 복음과 율법”(루터와 칼빈을 중심으로), 『장신논단』, 제6집(1990년)
- 하정오, 『구약 율법(계명)의 계속성 문제』, 고신대신대원,1989.
- 한정건, “새언약시대의 율법에 대한 고찰”, 『고신대학 논문집』 18집(1990년)
- 홍인규, “새롭게 열리는 바울의 율법이해(I)”, 『목회와 신학』, 93년10월호
- 홍인규, “새롭게 열리는 바울의 율법이해(II)”, 『목회와 신학』, 93년11월호

Th. M. Thesis

Calvin's View on Discontinuity and Continuity of the Law

Sang Hoon - Shim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Kosin University

Advised by Professor *Hwan Bong Lee, Th. D.*

Abstract

Introduction

A proper understanding of the Law is important. For it is closely related with the right soteriology and the ethical life of Christians. Because of legalism many heresies occurred in the history of Church. There are legalism and anti-legalism in the wrong view of the Law. Thus, a lack in understanding of the Law has occurred in the past and present. Today, this tendency was seen in Korean Church. As a result, the morality of the Church and Christians become to weak and the direction of the faith has lost it's place.

Thus, to establish a right view of the Law is needed. To establish it,

this thesis will deal with Calvin's view on the Law. Calvin not only conquered legalism but also understood the Law in a dynamic way.

Chapter 1

In chapter 1, I will talk about the concept and role of the Law. Calvin understood the Law in view of the religious relation between God and human beings. He defines the word "*Law*" not only as the Ten Commandments which sets forth a godly and righteous rule of living, but the form of religion handed down by God through Moses. The Law includes the moral Law, civil Law, and religious ritual Law. Calvin thinks the moral Law is most important. He thinks that the moral Law is the true and eternal rule of righteousness. In the theology of Calvin the role of the Law is to reveal the will of God to us. The Law is the expression of God's will toward human life.

Chapter 2

In chapter 2, I will talk about the discontinuity of the Law. The Law has discontinuity and continuity in it. Many people tend to misunderstand and to confuse this aspect of the Law. But Calvin clearly sees a division in the Law. Now, let's think of the discontinuity of the Law. The discontinuity that Calvin understood is as follows.

First, after the coming of Christ the condemnatory function of the Law does not apply to the believers. For Christ was cursed by God for us and accomplish the requirement of the Law(= complete obedience) for us.

Second, the function of ritual Law discontinues after the coming of Jesus Christ, too. For the rituals which foreshadow Christ in figures are no longer necessary after the coming of Jesus Christ. The rituals like shadows of the Law perished after the coming of Jesus Christ as the

reality of the Law. But the meaning of the ritual Law continues. The form of the ritual Law perished, but the meaning of the ritual Law continues.

Third, Jesus Christ had abolished "the traditions of the elders" (= *Halachah*). Jesus firmly rejected the traditions of the elders which distorted the meaning of the Law and changed the essence of the Law.

Chapter 3

Hence I will describe the continuity of the Law. Calvin's understanding on the continuity of the Law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Law is not abolished by Jesus. Jesus did not come to abolish the Law but to fulfill it. Jesus corrects the wrong interpretation of the Law and restores the true meaning of the Law and fulfills the Law. The Law points to Jesus Christ. Without Christ the Law isn't fulfilled. We should interpret and apply the Law in the light of Christ. For example, the fourth commandment interprets and applies in the light of the ministry of Jesus Christ. Therefore, we keep the day of the Lord instead of the sabbath by the holiness.

Second, the condemnatory function of the Law continues to apply to unbelievers. Jesus accomplished the requirement of the Law. The condemnatory function of the Law discontinues to those who believe in Jesus, but to those who are out of Jesus receive the condemnation and curse of the Law.

Third, the Law is continually valid to believers as the norm of life. As to believers the Law isn't the way of salvation any more, but continues to play a role in rule of life. Through the obedience to the Law the Holy Spirit restores the image of God in us.

Chapter 4

In chapter 4, I tend to deal with the conquest of Legalism. Calvin distinguishes between the discontinuity of the Law and the continuity of the Law but emphasizes the continuity of the Law. For that reason, Calvin is sometimes misunderstood as a legalist. While Calvin emphasizes the continuity of the Law, he conquers legalism. Here I will try to prove how Calvin conquers legalism in two points.

First, Jesus Christ is the completion of the Law. Calvin regarded the relation between the Law and the gospel as an organic relation. He thinks that Christ fulfills the Law and accomplishes the promises. In his commentary on Rom 10:4, he translates the word "τέλος" as completion or perfection which Erasmus translate in the same way. Thus, Christ is the completion of the Law so that there may be righteousness for everyone who believes. We are given the righteousness that Jesus has accomplished by faith. Being premised on faith, to emphasize continuity of the Law doesn't result in legalism but makes us humble and makes us rely on Jesus Christ who accomplished the Law.

Second, Christian Life is in the Holy Spirit. Christians are called to live a holy life by God. The Holy Spirit is sent for our sanctification and to make us obey the Law of God. Therefore, we can't think of the saved Christian's life except through the ministry of the Holy Spirit. The saved Christian obeys the will of God by the help of the Holy Spirit. Thus, we love each other and do good by the help of the Holy Spirit. After salvation, Christian's deeds should be treated in the context of Pneumatology. The saved Christian's life needs 100 percent of the Holy Spirit's ministry and 100 percent of a Christian's obedience and devotion. Thus, the life of Christians in the Holy Spirit is not passive nor negative, but is active and positive.

Chapter 5

In Chapter 5, I will talk about the Law and ethical Life. Here,

considering the relation between the understanding of the Law and Christian's ethical life, I would like to observe how God use the Law through Calvin's understanding of the Law. We observe the relation between the comprehension of the Law and ethical life. Today we live in a rapidly changing society. Thus, we're apt to reject traditional morals and values in almost every aspect and abolish old morals and values. But we find the norm for Christian ethics in the Holy Scriptures. Today the moral level of Christians and the Church seem to get lower. This tendency may result from a misunderstanding of the Law. The extreme evangelicals assert that we need not do good deeds because of being saved by faith alone and don't need the Law. This is wrong. This is the misunderstanding of the Law as the norm of the saved Christians's life. Calvin didn't eliminate the Law itself, only the condemnatory function of the Law is eliminated in the life of Christians. Because the Law of God continues to have effect as the norm of Christian's life, we must make the Law of God a rule and standard of the our life. Now, let's think of the Law's usage and life. God uses the Law as follows.

1) *Usus paedagogicus, elenchticus* as the first usage of the Law. This is related to the exposure of our guilt and guide us to Jesus Christ as the custodian .

2) *Usus civilis, politicus* as the second usage of the Law. It concerns the meaning of the Law for public, political life. It is necessary for public good.

3) *Usus didacticus, normativus* as the third usage of the Law. It points out the meaning of the Law as the rule of our thankfulness or the norm of a Christian's life.

It is the principal usage of the Law which pertains more closely to the proper purpose of the Law.

Thus, the three usages of the Law are God's way to restore us and give us grace. The three usages of the Law connect with each other

closely. God uses a different usage to the believer and the unbeliever. God used different usage before the coming of Christ and after the coming of Christ. God continues to use the Law in the process of the our salvation.

Conclusion

The Law of God is a difficult theme out of all the Biblical themes. Then, there are many misunderstanding of the Law and the lack of the Law in the history of the Church. It is the same today. But Calvin is the theologian who emphasizes the Law of God and conquers the legalism. The Law point to Jesus Christ. The mind of Christ always dwells in the center of the Law. Therefore, if we don't think of the Law in relation to Jesus Christ, we don't understand the Law correctly. Without a belief in Jesus Christ, to emphasize the obedience of the Law is legalism. But to obey the Law by belief in Jesus Christ who fulfilled the Law is the ministry of Holy Spirit. Through the obedience of the Law, the Holy Spirit continues to restore the image of God in us.

Soli Deo Gloria!!